

# 전북지역 성인의 녹차 및 녹차관련 제품에 대한 기호도와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 The Preference and Utilization of Green Tea and its Products of Adults in Chonbuk Area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인간생활과학연구소  
박사과정 양 향 숙  
교 수 노 정 옥

Dept. of Food Science and Human Nutrition  
and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Course : Yang, Hyang-Sook

Professor : Rho, Jeong-Ok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제언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고찰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eferences and utilization of green tea and its products for adults living in Chonbuk are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388 (117 male, 271 female) subjects, who were classified into 5 groups by age. Data were analysed by chi-square and ANOVA.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On the investigation of preference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nd among the age groups( $p < .001$ ). More than 20% of the subjects in the 20~29 years group preferred coffee and juice. A half of the elderly over 60 years preferred a kind of green tea.

The frequency of green tea drinking was not significantly influenced by age. Drinking green tea less than once a day was replied by 59.0% of the subject of whom 44.3% drank the green tea at home, and 42.0% got information about green tea from TV or radio. Regarding the satisfaction with products using green tea, 62.6% of the subjects responded only 'mediocre.' The brown rice-green tea was marked to be the highest in terms of recognition among all kinds of products. The green tea-related products were rated higher by the elder group. In conclusion,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the development of green tea and its products in accordance with the consumption pattern in each age group.

주제어(Key Words): 녹차(Green tea), 기호도(Preference), 이용실태(Utilization)

## I. 서론

녹차는 차나무과(The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상록식물로 차나무의 어린잎이나 순을 가공하여 제조한 것이다(박형우, 김윤호, 김상희, 차환수, 김동만, 2004). 약 5000년 전부터 몸에 독이 배었을 때 차를 마시고 독을 풀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면서 오랜 세월 동안 민간의약용으로 이용되어 왔다. 녹차는 카페인을 함유한 커피, 홍차 및 코코아와 함께 3대 비알콜성 기호음료로 아시아를 비롯한 160여개 국가에서 널리 이용되어 왔다(손경희, 이민준, 민성희, 이현주, 2000). 그러나 1900년대 이후 사회가 점차 산업화, 서구화 되면서 국민 소득의 향상과 함께 식생활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면서 음료 소비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편의식 또는 패스트푸드 소비가 매우 높아졌으며 이러한 패스트푸드위주의 식생활은 주로 고열량, 고지방, 고식염식으로 청량감을 주는 탄산음료의 소비를 촉진하게 되었다. 또한 간편성과 기호성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 감성에 맞게 손쉽게 음료를 취할 수 있는 자판기가 다량 보급됨에 따라 우리 전통 차보다는 커피, 탄산음료, 주스 등의 소비는 더욱 증대되었다(하태선, 박명희, 최영선, 조성희, 1999). 이러한 서구화된 식생활은 비만,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와 같은 영양과잉이나 영양불균형에서 오는 생활습관병이 증가하게 되었고(김영언, 오세욱, 권은경, 한대석, 김인호, 이창호, 2004), 이에 따른 대처 방안을 천연물질에서 찾고자 하는 연구뿐 아니라(이순재, 김미지, 윤연희, 1995), 식품 중에 함유된 기능성 인자들을 추출하고 이들의 생리활성 기능을 과학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진현화, 양정례, 정종화, 김양하, 2004). 특히 녹차의 약효 및 생리효과가 인간의 질병예방과 치료는 물론 신체활성 조절 기능을 가진 건강식품으로서 재인식되고 있다. 녹차의 기능성은 주로 카테킨 화합물에 의한 항산화효과(김미지, 이순재, 2002; 손규목, 배성문, 정지영, 신동주, 성태수, 2005), 중금속제거 및 해독작용(김미지, 이순재, 1994; 이서래, 이정희, 최성인 1993; 최정화, 이순재, 2001), 지질개선과 콜레스테롤저하(신미경, 한성희, 한경조, 1997; 정원훈, 신미경, 2000), 심장질환예방(이순재, 1999), 항비만(Tankred Wegener, 2003), 항염증(윤상웅, 황인아, 유종엽, 박경찬, 2003), 항균성(김창순, 정순경, 오유경, 김재명, 2003; 김혜영, 정성미, 2005), 항당뇨(이순재, 최봉순, 1998), 항암성 효과(서영준, 나혜경, 이정상, Joydeb K. Kundu, 천경수, 2003) 등에서 입증되어 왔다. 또한 녹차는 치매예방, 에이즈 바이러스 억제 및 전자파 방어효과,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의 흡수저해 등 다양한 효능이 보고된 바 있다(변재옥, 한재숙, 2004). 녹차의 여러 가지 기능성이 밝혀짐에 따라 현대인의 건강지향적인 욕구에 부응하여 녹차관련 음료 생산이 증

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마시는 음료이외에 녹차를 이용한 식품, 화장품, 약품 및 생활용품 등 다양한 관련제품이 출시되고 있다(박형우 외 4인, 2004).

지금까지 녹차에 대한 연구는 녹차의 일반성분 분석(박정현, 한성희, 신미경, 박근형, 임근천, 2001) 및 녹차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녹차 소비 관련 연구(박근형, 정종훈, 기민정, 은종방, 1996; 변재옥, 한재숙, 2004)와 미주지역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녹차음료에 대한 기호도조사(박형우, 김윤호, 김상희, 차환수, 김동만, 2004)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전북지역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령별 녹차에 대한 기호도 및 녹차관련 제품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녹차의 소비를 증대 시키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된 설문지는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2005년 4월 10일~2005년 9월 20일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개발된 설문지는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수정한 후 설문지를 완성하였으며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의 실시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 자리에서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총 400부를 배포하여 총 396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불충분하게 응답한 8부를 제외한 388부(97.9%)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2. 연구내용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관련 문헌(박모라, 1999; 변재옥, 한재숙, 2004)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성별, 연령, 신장, 체중, 최종학력, 직업, 종교, 한달 총수입), 녹차의 기호도 평가를 위한 3개 문항(가장 선호하는 음료, 녹차선호이유, 비선호이유), 녹차의 이용실태 평가를 위한 5문항(음용빈도, 음용시기, 장소, 녹차의 형태)과 녹차에 관한 정보획득경로 및 관련제품사용 후 만족도, 녹차를 이용한 제품의 인지도 등을 조사하였다. 녹차의 인지도는 Likert의 5점 척도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아주 잘 알고 있다" 5점에서 "전혀 알지 못한다" 1점으로 표기하였다.

###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1.5 package를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백분율로 나타냈으며, 조사대

상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 등은  $\chi^2$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령별 녹차관련 제품의 인지도 점수는 oneway-ANOVA에 의해 유의성을 검정 하였고, Duncan의 다중범위 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p<.05$  수준으로 비교 분석 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전체 조사 대상자는 388명이었고 남자 117명(30.2%), 여자 271명(69.8%)이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9.5세로 20~29세는 136명(35.1%), 30~39세 78명(20.1%), 40~49세 56명(14.4%), 50~59세 80명(20.6%), 60세 이상 38명(9.8%)의 분포를 보였다. 조사대상자중 무학인 남자는 없었으나 여자는 4명(1.0%)이었고 초등졸업 8명(2.1%), 중등졸업 22명(5.7%), 고등졸업 150명(38.7%), 대졸이상 204명(52.6%)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직업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6명(1.5%)에 불과하였고 주부가 117명(30.2)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전문직·기술직이 112명(28.9%), 학생 81명(20.9%)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종교를 조사한 결과 기독교 132명(34.0%), 무교 126명(32.5%), 천주교 62명(16.0%), 불교 54명(13.9%)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한달수입은 201만원 이상 204명(52.6%)으로 가장 많은 비율이었다.

#### 2. 조사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녹차의 기호도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녹차의 기호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선호음료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라 유의적으로( $p<.001$ ) 선호하는 음료의 차이가 있었다. 20대의 경우 가장 선호하는 음료는 커피류(24.3%)이었고, 그 다음이 주스류(23.5%) > 유산균류(19.9%), > 녹차류(10.3%)이었다. 30대, 40대, 50대의 경우도 가장 선호하는 음료는 커피류로 전체 조사 음료 중 33.8%에 해당하였다. 박근형, 정종훈, 기민정, 은종방(1996)의 연구에서 소비자들이 커피, 유산균 및 청량음료를 선호하는 이유로 소비자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빈도(%)	항목	남자	여자	전체
성 별		117(30.2)	271(69.8)	388(100)
연 령(세)	20~29	53(45.3)	83(30.6)	136(35.1)
	30~39	12(10.3)	66(24.4)	78(20.1)
	40~49	13(11.1)	43(15.9)	56(14.4)
	50~59	32(27.4)	48(17.7)	80(20.6)
	60<	7(6.0)	31(11.4)	38(9.8)
학 령	무학	-	4(1.5)	4(1.0)
	초등졸업	1(0.9)	7(2.6)	8(2.1)
	중등졸업	5(4.3)	17(6.3)	22(5.7)
	고등졸업	47(40.2)	103(38.0)	150(38.7)
	대졸<	64(54.7)	140(51.7)	204(52.6)
직 업	주부	-	117(43.2)	117(30.2)
	전문직, 기술직	43(36.8)	69(25.5)	112(28.9)
	학생	40(34.2)	41(15.1)	81(20.9)
	판매, 서비스직	8(6.8)	16(5.9)	24(6.2)
	사무관리직	11(9.4)	13(4.8)	24(6.2)
	기타	6(5.1)	9(3.3)	15(3.9)
	농·축·수산업	6(5.1)	-	6(1.5)
	무직	-	6(2.2)	6(1.5)
	생산, 노무직	3(2.6)	-	3(0.8)
종 교	기독교	45(38.5)	87(32.1)	132(34.0)
	무교	45(38.5)	81(29.9)	126(32.5)
	천주교	8(6.8)	54(19.9)	62(16.0)
	불교	15(12.8)	39(14.4)	54(13.9)
	기타	4(3.4)	10(3.7)	14(3.6)
한달수입 (만원)	≤50	12(10.3)	10(3.7)	22(5.7)
	51~100	8(6.8)	29(10.7)	37(9.5)
	101~150	14(12.0)	41(15.1)	55(14.2)
	151~200	24(20.5)	46(17.0)	70(18.0)
	201<	59(50.4)	145(53.5)	204(52.6)

〈표 2〉 조사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녹차의 기호도

N(%)

항 목		연 령(세)					Total
		20~29	30~39	40~49	50~59	60≤	
선호 음료	커피류	33(24.3)	33(42.3)	26(46.4)	29(36.3)	10(26.3)	131(33.8)
	녹차류	14(10.3)	22(28.2)	18(32.1)	23(28.8)	18(47.4)	95(24.5)
	주스류	32(23.5)	7(9.0)	2(3.6)	9(11.3)	-	50(12.9)
	우유 및 유산균류	27(19.9)	8(10.3)	2(3.6)	6(7.5)	2(5.3)	45(11.6)
	전통음료	11(8.1)	3(3.8)	1(1.8)	7(8.8)	5(13.2)	27(7.0)
	탄산음료	11(8.1)	-	2(3.6)	1(1.3)	1(2.6)	15(3.9)
	기타	3(2.2)	3(3.8)	3(5.4)	4(5.0)	1(2.6)	14(3.6)
	식이섬유 음료류	5(3.7)	2(2.6)	2(3.6)	1(1.3)	1(2.6)	11(2.8)
$\chi^2$ -value		85.61**					
선호 이유	건강에 유익	74(54.4)	59(75.6)	44(78.6)	50(62.5)	27(71.1)	254(65.5)
	향기가 좋아서	19(14.0)	7(9.0)	4(7.1)	13(27.1)	5(13.2)	48(12.4)
	기 타	15(11.0)	4(5.1)	1(1.8)	6(7.5)	3(7.9)	29(7.5)
	다이어트도움	11(8.1)	3(3.8)	3(5.4)	6(7.5)	-	23(5.9)
	잠을 쫓기 위해	5(3.7)	-	2(3.6)	1(1.3)	-	8(2.1)
$\chi^2$ -value		26.09					
비 선호 이유	다른차를 마셔서	40(29.4)	35(44.9)	28(50.0)	25(31.3)	9(23.7)	137(35.3)
	기 타	42(30.9)	25(32.1)	14(25.0)	24(30.0)	11(28.9)	116(29.9)
	맛이 없음	28(20.6)	11(14.1)	6(10.7)	12(15.0)	9(23.7)	66(17.0)
	쉽게 접할 수 없어서	21(15.4)	3(3.8)	2(3.6)	8(10.0)	3(7.9)	37(9.5)
	볼면 때문	2(1.5)	-	2(3.6)	7(8.8)	5(13.2)	16(4.1)
	냄새 싫음	3(2.2)	4(5.1)	4(7.1)	4(5.0)	1(2.6)	16(4.1)
$\chi^2$ -value		43.22**					

\*p<.05, \*\*p<.001

가 마시기 간편하게 제조되어 있고 마스크임이나 광고매체를 통하여 매일 접하고 있으며 가까운 가게나 슈퍼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본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60세 이상의 경우 가장 선호하는 음료는 녹차 이었다(47.4%). 고 연령층이 될수록 건강식품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음료 소비패턴의 차이가 크므로 녹차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비자행동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사료된다.

녹차 선호 이유에 있어 연령별로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건강에 유익함' 때문에 마신다는 응답이 6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녹차에 대한 인식 및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변재욱, 한재숙, 2004)에서 조사대상자의 31.4%가 녹차를 좋아 하는 이유로 '몸에 좋아서' 라고 답하여 본 조사와 같은 결과이었다. 그다음은 '향기가 좋아서' 12.4%, 습관적으로 마시는 경우가 6.7%로 나타났다. 여성의 커피와 다류의 섭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손경희 외3인, 2000)에서 건강에 대한 욕구의 증가와 함께 일상적인 식음료 섭취에도 소비자의 기호에 맞으며 건강에 좋은 음료를 찾는다는 의견을 제시 한 바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경우 건강 유익함 54.4%, 향기가 좋아서 14.0%, 다이어트에 도움 8.1%로 다른 연령에 비해 녹차를 선호하는 이유에 있어 다이어트에

도움 때문에 마신다는 응답율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Tankred Wegener(2003)의 녹차추출물의 건강 관련 효능에 관한 연구에서 녹차 추출물은 in vitro 실험이나 임상시험에서 녹차를 투여 했을 때 체중 감소효과와 에너지 소비가 유의적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더욱이 본 연구의 대상자중 20~29세 여성 비율(21.3%)이 남성 비율(13.6%)보다 높는데 여성들의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이러한 관심이 높으므로 음료 선택에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박근형 외 3인(1996)의 녹차에 대한 기초적인 특징을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 맛(40.4%), 색(1.7%), 향기(39.5%), 그리고 영양 때문(18.4%)에 선택하고 있어 본 조사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으나 본 조사결과와 선행연구결과들을 비교해 볼 때 녹차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건강과 향기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녹차 비선호 이유를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라 녹차를 즐기지 않은 이유에 유의적인(p<.01)차이를 나타냈다. 전체 조사대상 중 35.3%가 다른 차를 마셔서 녹차를 즐기지 않고 있었고, 맛이 없어서 즐기지 않는다는 대답이 17.0%이었다. 특히 60대 이상의 대상자에 있어 23.7%는 녹차가 맛이 없어서 즐기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20대의 20.6%가 동일한 답변을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녹차를 다른 기호음료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맛에 더욱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녹차는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 맛과 향기가 다르므로

구체적으로 녹차제품 소비자의 선호성향을 파악하여 성별, 연령별, 건강상태, 녹차의 음용기간 등의 여러 요인을 고려한 다양한 녹차 제품이 출시되어야 할 것이다. 신미경(1994), 전정례, 박금순(1999)의 연구에 의하면 녹차는 고온에서 단시간 볶음으로써 풋내가 줄고 상쾌하고 그윽한 향기가 증가하며, 탕색이 옅어 황색을 띠고, 글루탐산이나 메티오닌이 증가하는 등 맛이 독특해진다는 보고를 한바 있다. 따라서 녹차소비자의 다양한 연령층 확보를 위해서는 차의 가공방법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3. 녹차의 이용실태

조사대상자의 녹차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녹차의 음용 빈도에 있어 연령에 따른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조사대상자 중 59.0%가 하루에 1잔 정도, 29.4%는 2잔, 9.0%는 3잔 이상 마시고 있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64.0%, 30대 57.7%, 40대 51.8%, 50대 57.5%, 60대 이상 57.9%가 하루에 한잔정도 이었다. 3잔 이상 마시는 경우는 60대 이상에서 13.2%, 40대 12.5%, 50대 10.0%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녹차를 3잔 이상 마시는 빈도가 높았다.

변재옥 외 1인(2004)의 연구에서 녹차 음용 빈도가 하루 1잔이 51.1%로 조사되었고, 박근형 외 3인(1996)의 연구에서는 하루에 1잔이상 마시고 있는 소비자는 응답자의 20%로 조사되어 본 조사대상자의 녹차의 음용 빈도가 다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전통문화의 재평가 등 소비자의 기호와 가치관의 변화 때문으로 생각된다.

녹차 음용시기를 조사한 결과 연령에 따라 유의적(p<.001)으로 차를 마시는 시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46.9% 생각날 때 16.5%는 점심식사후, 13.7%는 아침식사후 녹차를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의 53.7%가 생각날 때 녹차를 마시고 있었고, 60대의 10.5%는 아침식사 전에 녹차를 마시고 있었다. 반면에 30대, 40대, 50대는 아침식사 전에 녹차를 마시지 않았다. 임근철, 기민정, 정육재, 신기호, 최정(2004)의 일본인의 한국 녹차선호도에 관한 조사연구에서는 일본인은 녹차를 귀한 손님에게 존경을 표시할 때 녹차를 이용하였고, 식사를 하고 나서 소화를 위하여 녹차를 마시고 있음을 보고 한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 중 30.2%가 녹차를 식사 후에

<표 3> 녹차의 이용실태

항목		연령(세)						N(%)
		20~29	30~39	40~49	50~59	60≤	Total	
빈도 (24시간)	≥1	87(64.0)	45(57.7)	29(51.8)	46(57.5)	22(57.9)	229(59.0)	
	2잔	34(29.8)	26(33.3)	20(35.7)	25(31.3)	9(23.7)	114(29.4)	
	3≤	8(5.9)	7(9.0)	7(12.5)	8(10.0)	5(13.2)	35(9.0)	
전혀 마시지 않는다		7(5.1)	-	-	1(1.3)	2(5.3)	10(2.6)	
$\chi^2$ -value		15.29						
음용 시기	아침식사전	2(1.5)	-	-	-	4(10.5)	6(1.5)	
	아침식사후	11(8.1)	7(9.0)	8(14.3)	20(25.0)	7(18.4)	53(13.7)	
	점심식사후	17(12.5)	17(21.8)	17(30.4)	8(10.0)	5(13.2)	64(16.5)	
	저녁식사후	11(8.1)	3(3.8)	1(1.8)	6(7.5)	-	21(5.4)	
	생각날 때	73(53.7)	39(50.0)	22(39.3)	34(42.5)	14(36.8)	182(46.9)	
	기 타	22(16.2)	12(15.4)	8(14.3)	12(15.0)	8(21.1)	62(16.0)	
$\chi^2$ -value		57.45***						
녹차 형태	티백	115(84.6)	54(69.2)	32(57.1)	40(50.0)	15(39.5)	256(66.0)	
	잎차	13(9.6)	15(19.2)	20(35.7)	32(40.0)	14(36.8)	94(24.2)	
	기타	4(2.9)	4(5.1)	3(5.4)	3(3.8)	6(15.8)	20(5.2)	
	가루녹차	3(2.2)	4(5.1)	1(1.8)	4(5.0)	2(5.3)	14(3.6)	
	식품 속 함유	1(0.7)	1(1.3)	-	1(1.3)	1(2.6)	4(1.0)	
$\chi^2$ -value		55.83***						
음용 장소	가정	47(34.6)	37(47.4)	30(53.6)	33(41.3)	25(65.8)	172(44.3)	
	사무실, 학교	54(39.7)	36(46.2)	20(35.7)	32(40.0)	6(15.8)	148(38.1)	
	기 타	14(10.3)	3(3.8)	5(8.9)	6(7.5)	7(18.4)	35(9.0)	
	커피숍, 카페	13(9.6)	2(2.6)	1(1.8)	3(3.8)	-	19(4.9)	
	음식점	8(2.1)	-	-	6(7.5)	-	14(3.6)	
$\chi^2$ -value		42.91***						

\*\*\*p<.001

마시고 있었다. 이는 우리의 식생활의 특성상 국 또는 뜨거운 탕을 즐기며, 식후 누룽지나 송늬를 마시는 생활 습관의 결과로 생각된다. 이금초롱(2004)의 녹차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 변수 중 식생활과 문화생활이 녹차의 음용률과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따라서 녹차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식사 후 가족, 친지 및 친구들과 차를 나누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다도 등의 차 문화 활동을 통해 생활 속에 차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사료된다.

음용하는 녹차의 형태는 주로 티백 (66.0%) 형태이었으며 그 다음은 잎차가 24.2%, 가루녹차 3.6% 순이었다.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잎차를 더 선호하고 있었다. 임근철 외 3인 (2004)의 연구에서 일본인들은 응답자의 81.2%가 봉지녹차를 선호하고 있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와는 커다란 차이를 나타냈다.

녹차 음용 장소는 가정이 44.3%, 사무실·학교 38.1%, 커피숍, 카페 4.9%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사무실·학교 39.7%, 30대는 가정 47.4%, 사무실·학교 46.2%가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40대 이후는 가정에서 마신다는 대답이 더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조사 대상자중 주부가 30.2%이었으므로 가정에서 녹차를 마신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4. 녹차에 관한 정보획득 경로 및 제품이용 만족도

녹차에 관한 정보획득 경로는 연령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전체 조사대상자 중 42.0%가 TV·라디오

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부모, 친구 및 친지 22.2%, 신문, 잡지 16.2%, 인터넷 14.9%의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TV·라디오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응답율이 가장 높게(53.8%) 나타났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취득 하는 비율은 20대(20.6%)가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녹차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연령별에 따른 마케팅의 변화가 요구된다. 즉, 신체적으로 나약하고 정보 탐색력이 다소 적은 고 연령층에게는 구체적인 소비자 교육 뿐 아니라 쉽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정용선, 김인숙, 1998). 반면 20~30대의 경우 젊은 세대의 감각에 맞는 홍보자료와 인터넷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녹차 관련 제품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전체조사대상 중 62.6%가 '보통이다'로 답하여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연령별로 보면 30대는 다른 연령 대와 비교할 때 만족이 42.3%이었으나, 20대의 경우 "매우불만족"한다는 응답율이 4.4%로 높게 조사되었다. 본 연구 결과 20대의 경우 커피, 주스, 탄산음료 등의 단맛의 음료를 평소 자주 마시기 때문에 다소 단맛이 적은 녹차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5. 녹차를 이용한 제품의 인지도

〈표 5〉는 녹차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의 인지도를 조사한 것이다. 각 제품 중 가장 인지도 점수가 높은 것은 현미녹차 (4.17±1.19)이었다. 그 다음은 떡류(4.10±1.20)와 녹차가 첨가된 아이스크림(4.10±1.37), 녹차삼겹살(4.00±1.37), 녹차다식(4.00±1.37), 녹차젤리(4.01±0.74) 순이었다. 각 연령

〈표 4〉 녹차의 정보획득 경로 및 제품이용 만족도

항목		연령(세)					Total	N(%)
		20~29	30~39	40~49	50~59	60≤		
정보 획득 경로	TV, 라디오	53(39.0)	31(39.7)	21(37.5)	43(53.8)	15(39.5)	163(42.0)	
	부모, 친구, 친지	29(21.3)	14(17.9)	19(33.9)	14(17.5)	10(26.3)	86(22.2)	
	신문, 잡지	20(14.7)	19(24.4)	7(12.5)	11(13.8)	6(15.8)	63(16.2)	
	인터넷	28(20.6)	11(14.1)	7(12.5)	8(10.0)	4(10.5)	58(14.9)	
	건강식품 판매점	3(2.2)	2(2.6)	-	3(3.8)	2(5.3)	10(2.6)	
	병원, 약국	-	-	1(1.8)	-	1(2.6)	2(0.5)	
	기 타	3(2.2)	1(1.3)	1(1.8)	1(1.3)	-	6(1.5)	
$\chi^2$ -value		28.36						
제품에 대한 만족도	보통	89(65.4)	39(50.0)	31(55.4)	57(71.3)	27(71.1)	243(62.6)	
	만족	32(23.5)	33(42.3)	21(37.5)	20(25.0)	9(23.7)	115(29.6)	
	매우만족	3(2.2)	4(5.1)	-	3(3.8)	1(2.6)	11(2.8)	
	불만족	6(4.4)	2(2.6)	2(3.6)	-	-	10(2.6)	
	매우불만족	6(4.4)	-	2(3.6)	-	1(2.6)	9(2.3)	
$\chi^2$ -value		57.45***						

\*\*\*p<.001

〈표 5〉 녹차를 이용한 제품의 인지도

M±SD

항 목	연 령(세)					F- value
	20~29	30~39	40~49	50~59	60≤	
아이스크림	2.95±1.52 <sup>b</sup>	2.94±1.70 <sup>b</sup>	3.71±1.54 <sup>a</sup>	3.67±1.55 <sup>a</sup>	4.10±1.37 <sup>a</sup>	7.29***
녹차삼겹살	2.76±1.44 <sup>c</sup>	2.76±1.57 <sup>c</sup>	3.28±1.54 <sup>b</sup>	3.52±1.58 <sup>ab</sup>	4.00±1.37 <sup>a</sup>	7.78***
녹차라떼	3.11±1.29 <sup>a</sup>	3.38±1.66 <sup>a</sup>	3.35±1.63 <sup>a</sup>	2.41±1.25 <sup>b</sup>	2.39±1.32 <sup>b</sup>	7.62***
녹차면류	1.93±0.75	2.15±0.72	2.00±0.78	2.03±0.81	1.84±0.82	1.46
빵 류	3.25±1.44 <sup>ab</sup>	2.82±1.64 <sup>b</sup>	3.39±1.59 <sup>ab</sup>	3.37±1.68 <sup>ab</sup>	3.68±1.56 <sup>ab</sup>	2.40 <sup>*</sup>
녹차다식	3.80±1.44	3.46±1.50	3.57±1.51	3.60±1.60	4.00±1.37	1.23
떡 류	3.75±1.53	3.66±1.35	3.82±1.41	4.02±1.38	4.10±1.20	1.09
현미녹차	3.83±1.56	3.87±1.31	4.17±1.19	3.67±1.65	4.15±1.19	1.35
유제품 류	2.72±1.44	2.82±1.27	2.80±1.27	2.97±1.24	3.26±1.30	1.43
차잎 무침	1.85±1.49	1.74±1.37	1.89±1.42	1.85±1.48	1.21±1.18	0.70
두유 류	2.08±1.49 <sup>c</sup>	2.17±1.45 <sup>c</sup>	3.32±1.65 <sup>ab</sup>	3.10±1.61 <sup>b</sup>	3.73±1.57 <sup>a</sup>	15.32***
녹차젤리	4.01±0.74 <sup>a</sup>	4.01±0.78 <sup>a</sup>	3.76±0.89 <sup>ab</sup>	3.87±0.76 <sup>a</sup>	3.52±1.00 <sup>b</sup>	3.41**
과자 류	3.61±1.62 <sup>ab</sup>	3.28±1.66 <sup>b</sup>	3.67±1.58 <sup>ab</sup>	3.65±1.55 <sup>ab</sup>	3.94±1.45 <sup>a</sup>	1.28

1: 전혀 모른다 2: 조금 알고 있다 3: 보통이다. 4: 잘 알고 있다 5: 아주 잘 알고 있다  
\*p<.05, \*\*\*p<.001

별에 따른 인지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녹차가 첨가된 아이스크림과 녹차라떼에 대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p<.001)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녹차면류, 녹차다식, 떡류, 녹차젤리, 유제품류, 차잎무침 및 과자류의 경우 연령에 따라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녹차관련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빵류(p<.05)와 두유류(p<.001)에 있어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인지도가 높았으며, 반면에 현미녹차는 연령이 감소할수록 인지도가 유의적(p<.01)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젊은 연령층은 보다 손쉽게 먹을 수 있는 티백형태의 녹차를 선호하고 있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젊은 연령대에 비해 녹차제품에 인지도가 높았다.

####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녹차에 대한 기호도 및 녹차관련 제품의 이용실태 파악 및 인지도 조사를 통하여 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요구도를 파악하고 녹차의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북지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는 총 388명이었고 남자117명(30.2%), 여자271명(69.8%)이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9.5세였으며 20~29세는 136명(35.1%), 30~39세 78명(20.1%),

40~49세 56명(14.4%), 50~59세 80명(20.6%), 60세 이상은 38명(9.8%)이었다. 학력은 초등졸업 8명(2.1%), 중등졸업 22명(5.7%), 고등졸업 150명(38.7%), 대졸이상 204명(52.6%)이었다. 조사대상중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6명(1.5%)이었으며 주부가 117명(30.2)으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종교는 기독교 132명(34.0%), 무교 126명(32.5%), 천주교 62명(16.0%), 불교 54명(13.9%)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한달수입은 201만원 이상 204명(52.6%)으로 가장 많은 비율이었다.

2. 녹차의 기호도 조사결과 연령에 따라 유의적으로(p<.001) 선호하는 음료의 차이를 보였다. 20대의 경우 커피류 24.3% > 주스류 23.5% > 유산균류 19.9% > 녹차류 10.3% 이었고, 30~50대의 가장 선호하는 음료는 커피류(33.8%)이었다.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가장 선호하는 음료는 녹차류(47.4%)이었다.
3. 녹차 음용 빈도는 연령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체 조사대상 중 59.0%가 하루에 한잔이하로 녹차를 마시고 있었다. 2잔은 29.4%, 3잔 이상은 9.0%뿐이었다. 조사대상중 46.9%가 생각날 때 마시고 있었으며 마시는 시기는 20대(53.7%)가 60대(10.5%)가 아침식사전에 녹차를 마시고 있었다(p<.001). 녹차를 마시는 형태는 66.0%가 티백형 녹차를 마시고 있었다. 마시는 장소는 가정 44.3%, 사무실·학교 38.1%, 커피숍·카페 4.9% 순이었다.

4. 녹차에 관한 정보획득 경로 및 제품이용 만족도는 연령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전체 조사대상자 중 42.0%가 TV·라디오, 부모·친구 및 친지 22.2%, 신문·잡지 인터넷 14.9% 순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다. 특히 50대(53.8%)가 TV·라디오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응답율이 가장 높았으며 20대는 20.6%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다. 녹차관련 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조사대상자 중 62.6%가 '보통이다'로 답하여 녹차 관련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30대가 녹차 제품 만족도가 다른 연령에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
5. 녹차를 이용한 제품의 인지도 조사결과 각 제품 중 인지도 점수는 현미녹차 <아이스크림> 녹차삼겹살 <녹차다식> 녹차젤리의 순이었다. 각제품의 인지도 점수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녹차가 첨가된 제품에 대한 인지도의 점수가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녹차 기호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조사되었다. 특히 젊은층의 경우 맛, 향기 등 제품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각 연령층의 소비성향에 따른 제품개발의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2. 녹차의 음용빈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녹차의 음용 빈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섭취 빈도가 낮으면 그 음료의 대한 기호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섭취할 기회를 많이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3. 녹차를 선호하는 연령이 젊은 층에 비해 고 연령층에서 높게 조사된바와 같이 기존의 고객층을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변화가 요구된다. 고 연령층에게는 쉽게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홍보와 함께 구체적이고 쉽게 이해되는 내용으로 마케팅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겠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전북지역 일부 성인만으로 제한하였으므로 앞으로 지역 및 조사대상자를 확대하여 비교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 ■ 참고문헌

- 김미지, 이순재(1994). 한국산 녹차, 우롱차 및 홍차음료의 cardmium 제거작용에 관한 연구. *식품영양과학회지*, 23(5), 784-791
- 김미지, 이순재(2002). 녹차가 유산소 운동 후 흰쥐 간조직의 항산화 작용 및 근피로 회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1(6), 1058-1064.
- 김영연, 오세옥, 권은경, 한대석, 김인호, 이창호(2004). 녹차, 메밀, 포도잎 추출물이 고콜레스테롤 급여 흰쥐의 지질대사 TBARS 및 혈액응고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과학회지*, 36(6), 979-985.
- 김창순, 정순경, 오유경, 김재명(2003). 빵 부패미생물에 대한 녹차의 항균작용.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2(3), 413-417.
- 김혜영, 정성미(2005). Cook-Chill System을 위한 생산품의 냉장저장 중 녹차 추출물의 첨가에 따른 일부 식중독균의 증식저해효과. *한국조리과학회지*, 21(1), 47-52.
- 박근형, 정종훈, 기민정, 은종방(1996). 국산 녹차의 소비자 행동에 관한 조사. *한국차학회지*, 2(1), 129-146.
- 박모라(1999). 대학생들의 음료소비실태 및 이미지 조사 연구.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9(4), 501-513.
- 박장현, 한성희, 신미경, 박근형, 임근천(2001). 혐기처리 조건에 따른 녹차의 주요성분변화. *한국농작물학회지*, 9(4), 275-279.
- 박형우, 김운호, 김상희, 차환수, 김동만(2004). 미주지역 현지인을 대상으로 녹차음료에 대한 기호도 조사.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11(4), 569-573.
- 변재옥, 한재숙(2004). 녹차에 대한 인식 및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9(2), 184-192.
- 서영준, 나혜경, 이정상, joydeb. k. Kundu, 천경수(2003). 녹차추출물의 산화적, 염증적 조직손상에 미치는 보호효과. *한국식품과학회지*, *국제녹차심포지움*, 7, 103-118.
- 손경희, 이민준, 민성희, 이현주(2000). 여성의 커피와 다류의 섭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5(5), 398-412.
- 손규목, 배성문, 정지영, 신동주, 성태수(2005). 녹차와 보이차 추출물의 항산화효과. *한국식품영양학회지*, 18(3), 219-224.
- 신미경(1994). 녹차의 과학.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9(4), 433-445.
- 신미경, 한성희, 한경조(1997). 녹차의 음용이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투여한 흰쥐의 혈청지질 및 간의 조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과학회지*, 29(6), 1255-1263.
- 이금초롱(2004). 녹차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국차학회지*, 10(1), 7-24.
- 이서래, 이정희, 최성인(1993). 녹차음료의 중금속 제거효과. *한국식품과학회지*, *국제녹차심포지움*, 2, 29-33.
- 이순재(1999). 당뇨구에서 녹차 카테킨의 심장 질환 예방 효과. *한국식품과학회지*, *국제녹차심포지움*, 5, 3-20.
- 이순재, 김미지, 윤연희(1995). 한국산 녹차, 우롱차 및 홍차음료의 중금속 제거 및 해독작용. *한국식품과학회지*, *국제녹차심포지움*, 30, 21-38.



- 이순재, 최봉순(1998). 녹차음료가 당뇨취 폐조직에서의 약물 대사 효소 활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응용과학연구논집*, 6(2), 287-296.
- 임금철, 기민정, 정육재, 신기호, 최정(2004). 일본인의 한국 녹차 선호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차학회지*, 10(3), 67-80.
- 윤상용, 황인아, 유종엽, 박경찬(2003). 녹차추출물을 함유한 보습제의 항염증 효과 평가. *대한피부과학회지*, 41(1), 15-20.
- 전정례, 박금순(1999). 구주구조에 의한 녹차제조 1. 일반성분 및 화학적 조성. *한국조리과학회지*, 15(3), 95-101.
- 정용선, 김인숙(1998). 노인소비자 정보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관한 연구 - 건강보조식품을 중심으로-. *한국마케팅과학회지*, 1, 87-108.
- 정원훈, 신미경(2000). 고지방식이에 Treadmill 운동과 녹차추출물 섭취가 흰쥐의 혈청지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29(4), 683-690.
- 진현화, 양정례, 정종화, 김양하(2004). 고 콜레스테롤 식이 투여 흰쥐에 있어서 녹차의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3(1), 47-51.
- 최정화, 이순재(2001). 만성 카드뮴 중독 쥐에서 카드뮴 축적에 미치는 녹차 Catechin의 영향. *한국영양학회지*, 34(4), 384-392.
- 하태선, 박명희, 최영선, 조성희(1999). 대학생의 음료섭취 실태와 식품섭취 및 영양소섭취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대한영양사회학술지*, 5(1), 21-28.
- Tankred Wegener(2003). 체중감소 효과의 측면에서 본 녹차추출물의 건강관련 효능. *한국식품과학회지, 국제녹차 심포지움*, 7, 23-43.

---

(2006년 5월 12일 접수, 2006년 8월 1일 채택)